

‘불굴의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의 열정과 나눔정신 조명

대한체육회, 평전 출간... 19일 전통문화관서 추념식·북토크

‘불굴의 산악인’ 고(故) 김홍빈(사진) 대장의 삶은 끝 없는 도전과 열정적인 나눔의 연속이었다. 그는 장애이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 봉우리와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등정했다. 장애인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온 그는 2018년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이사장 류재선)를 설립, 산악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21년 7월 18일 브로드피크(8047m)를 올라 대기륙의 마중표를 찍은 그는 아쉽게도 하산 도중 추락해 실종됐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홍빈 대장 4주기를 앞두고 그의 치열했던 삶과 등반
여정을 모명한 평전이 출간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
민)는 최근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김
홍빈 대장의 평전 '도전과 나눔의 '희망 전도사' 김홍빈'
을 펴냈다.

평전은 김대장과 남극 최고봉 빈슨 매시프에 오르는 등 산악 운동을 함께 해온 정후식 전 광주일보 논설주간(사)김흥빈과 희명만들기 부이사장)과 문종국 선애문 등산학교장이 공동집필했다. 평전은 전자책(eBook)으로도 함께 발간됐다.

모두 8부로 구성된 평전은 1991년 북미 최고봉 데날

리에서 조난사고로 양손을 모두 잃는 시련을 겪고도 30년간 세계 산악 역사를 새로 쓰며 알피니즘의 패러다임을 바꾼 김 대장의 담대한 도전의 행로를 추적했다. 특히 열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어떻게 '죽음의 지대'라고 불리는 수직의 첨봉들을 올라설 수 있었는지를 집중 탐사했다.

책은 김대장이 고산 등반 도중 틈만 나면 노트북 자판
을 두드려 남긴 일기장과 원정 일지, 7대륙과 히말라야
원정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뼈대로 삼았
으며 그의 손발이 되어 원정을 함께했던 선후배 산악인들
과 후원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인터뷰로 채워졌다.

정후식 공동저자는 “김 대장이 보여준 불굴의 도전과 희망 나눔의 자세를 ‘김홍빈 정신’이라고 부를 만하다”며 “그의 뜨거운 발자취와 도전 의식을 면면히 기리고 보존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해 이제 우리가 그의 정신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장의 뜻을 이어 받아 장애인과 함께 하는 희



망 산행,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캠프 후원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는 '김홍빈 대장 4주기 산악문화제'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추념식과 '도전과 나눔의 '희망 전도사' 김홍빈' 북토크, 특별 사진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제주여성가족정책네트워크 포럼



(재)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해란)은 최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청년여성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전라제주여성가족정책네트워킹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전라제주여성가족정책네트워킹은 전남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출범한 여성가족정책 협력기구로,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장 선임



화순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신명근(사진) 교수가 올해 초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데 이어, 지난 6월 29일 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간이다.

신명근 신임 이사장은 화순전남
대병원 교육연구실장과 진료처

장, 제9대 병원장, 전남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진단검사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재단은 2010년 설립 이후 우수 검사실 신입인중 평가사업, 검사실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진단검사의학의 표준화와 발전을 선도해 왔다.

/서승원 기자 swseo@

/서승원 기자 swseo@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55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10]	00 KBS 뉴스특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인간극장 스페셜		
[11]		10 방판뮤직 어디든 가요 스페셜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노무사 노무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안녕 자두야 6
[1]	00 열린채널	30 여왕의 집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우리 집 금송아지(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4]	00 사시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고향이 보인다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여왕의 집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시장의 품격 50 SBS 8 뉴스
[8]	30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다큐 인사이드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개그 콘서트 스페셜	45 MBC 뉴스 25	50 힐링 여수야(재)
[12]	00 KBS 중계식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리얼 라이브	50 테마스페셜(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클래스 e
05:50 한국가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15 무지개 감자지 딜런의 모험
07:30 엄마 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젤
08:00 덩동댕 덩동댕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05 메탈카봇스 경찰의 귀환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
09:4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0:30 한국가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천바람 불면 인도차이나반도
-다정다감 미안파〉
12:00 EBS 뉴스 12
12:10 견학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블루스
16:10 덩동댕 덩동댕
17:00 페파 피그
17:10 엄마 까투리(재)
17:25 레인보우 버블젤(재)

17:40 타타와 쿠마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재)
18:10 EBS 뉴스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9:20 고향민국
19:50 PD로그
20:40 세계테마기행
〈이제 물고기야!-정령의 땅, 홀스폴〉
21:35 한국가행
〈그대 없이 못 살아 4부
그대 가고 없어요〉
21:55 왔다! 내 손수
22:45 다큐멘터리 K
23:40 위대한 수업, 그래티드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 (음 6월 9일 癸酉)

☎ 010-9790-8237

子

36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48년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호전되어가고 있다. 60년생 전예기에 걸린 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72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라. 84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96년생 성사의 기미를 띠고 있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33, 91**

巳

37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압박하여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을 부른다. 49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판세이다. 61년생 끝까지 절제된 언행을 한다면 시비수를 피해 갈 수 있다. 73년생 친화력과 자연스러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85년생 편의에 치우친다면 판세를 악화시킨다. 97년생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하리라. **행운의 숫자 : 39, 74**

午

38년생 조짐이 보인다면 원전 봉쇄하는 것이 무방하다. 50년생 내용물은 내버려 둔 채 의형만으로 인식하다가는 큰일 나게 된다. 62년생 지난 날 언행 했던 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날이다. 74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86년생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98년생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16, 97**

未

39년생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51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63년생 겉으로는 말쑥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75년생 무의식중에 흘린 말이 말쑥의 소지가 될 수 있다. 87년생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99년생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2, 56**

申

40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악재가 된다. 52년생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64년생 혼잡한 상태에서 바쁘게 진행될 것이니 집중해야라. 76년생 복잡다단했던 일이 늦게나마 정리될 소지가 있다. 88년생 절치대오 이행해야만 차질이 없으리라. 00년생 항심으로써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1, 67**

酉

41년생 중지대한 일이므로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53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77년생 관리만 잘 한다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89년생 폭력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우리라. 01년생 정황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선제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14, 98**

戌

42년생 독작적인 방책을 세우라. 54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겠다. 66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시기의 외로워 얻는 바가 대단히 많을 것이다. 78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라. 90년생 파도하라면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02년생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리라. **행운의 숫자 : 29, 77**

亥

43년생 형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야 할 때가 되었도다. 55년생 어떠한 유익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67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79년생 어떠한 기준이나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91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소모적인 양상을 야기할 뿐이리라. 03년생 기만을 이뤄가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01, 55**

子

44년생 계약 건에 있어서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호기로다. 56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모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리라. 68년생 인식의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수 있다. 80년생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92년생 개괄적인 파악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04년생 구연으로 인한 압박이 깊으리라. **행운의 숫자 : 36, 62**

巳

45년생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나. 57년생 전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69년생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면 욕심내어서는 아니 된다. 81년생 파격적인 변화의 추구가 생산성을 도모하리라. 93년생 망설이다가는 실하기가 되는 법이다. 05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 **행운의 숫자 : 25, 93**

午

46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류가 있다. 58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70년생 이 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82년생 유동적인 폭거지 감안하여 지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94년생 우려해 왔던 형세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06년생 적당히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행운의 숫자 : 48, 88**

未

47년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미치는 파장은 대단할 것이다. 59년생 드러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야 공유할 수 있다. 71년생 참신한 방향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83년생 구색을 다 갖추려다 보면 실하기가 많을 것이다. 95년생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다. 07년생 사고의 전환만 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17, 86**